

# 아랍에미리트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9.

I. 일반개황 .....	1
II. 경제동향 .....	2
III. 정치·사회동향 .....	9
IV. 국제신인도 .....	12
V. 종합의견 .....	14

## I. 일반개황

면적	84천 km <sup>2</sup>	G D P	4,026억 달러 (2013년)
인구	9.35백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43,060달러 (2013년)
정치체제	연방 대통령 중심제	통화단위	UAE Dirham (Dh)
대외정책	친서방	환율(달러당)	3.67 (2013년 평균)

- 걸프만 연안에 위치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아부다비(Abu Dhabi), 두바이(Dubai), 아즈만(Ajman), 푸자이라흐(Fujairah), 라스 알-하이마흐(Ras al-Khaimah), 샤르자흐(Sharjah), 움 알-카이와인(Umm al-Qaiwain)의 7개 토후국으로 구성된 연합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오만과 접경하고 있음.
- 2013년 말 기준 원유와 천연가스에서 각각 세계 7위의 확인매장량(원유 978억 배럴, 천연가스 6.1조 입방미터)을 보유한 자원부국임. 또한, 두바이는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를 바탕으로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아 정부는 건설, 유통, 제조업 육성 등 산업다각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2010년 12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혁명("아랍의 봄")이 중동 지역 전역으로 확산되어 현재까지도 중동 지역의 일부 국가들이 정정불안을 겪고 있으나, UAE는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아부다비의 군주)의 통치하에 정치·사회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II. 경제동향

### 1. 국내경제

#### □ 원유 생산량 증가와 비석유 부문의 급성장으로 경제성장 지속

○ 석유산업이 GDP의 40%, 수출의 40%,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성장이 국제유가 등락과 원유생산 및 수출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나, 최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석유 부문의 성장이 두드러짐.

- UAE 석유 매장량의 94% 이상, 천연가스 매장량의 9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전체 GDP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일일 원유생산량(천 배럴): 2,723(2009) → 2,895(2010) → 3,319(2011) → 3,399(2012) → 3,646(2013)

○ 2013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추세 속에서도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내수 성장에 힘입어 5.2%의 경제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둔화된 4.6%의 경제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비석유 부문의 급성장이 경제성장을 계속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됨.

-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Upper Zakum 역외유전(면적 1,200km<sup>2</sup>로 세계 제2위 규모의 역외유전이며, 일일 생산량 약 75만 배럴 전망) 등 생산능력의 확충으로 원유 생산량이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 재정지출 증가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 다소 위축

○ 2013년에는 교육, 수자원, 전력 보급에 대한 재정지출 증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국영 석유기업의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 등으로 인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규모가 전년 대비 1.3% 포인트 축소된 6.5%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도 국제유가 하락세와 복지 강화 및 인프라 확충(특히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송유관 네트워크 확대 프로젝트)을 위한 정부 지출의 증가가 지속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규모는 전년 대비 0.7% 포인트 축소된 5.8%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 두바이의 부동산 매매가 및 임대료 급등의 영향으로 물가 상승 추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3년에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하락세 둔화의 영향으로 전년(0.7%) 대비 다소 상승한 1.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두바이를 중심으로 하는 부동산 경기 과열에 따른 부동산 매매가 및 임대료 급등의 영향으로 2.5%로 더욱 상승할 전망이다.

#### < 표 1 >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up>e</sup>	2014 <sup>f</sup>
경제성장률	1.6	4.9	4.7	5.2	4.6
재정수지 / GDP	-2.2	4.1	7.8	6.5	5.8
소비자물가상승률	0.9	0.9	0.7	1.1	2.5

자료: IMF, EIU.

## 2. 경제 구조 및 정책

### 가. 구조적 취약성

#### □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의 지속

- 정부가 관광업, 금융업 등의 육성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석유산업이 GDP의 40%, 수출의 40%, 재정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석유산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 변동 및 원유 생산량 증감이 국가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음.

#### □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국영기업의 과중한 채무 부담

- UAE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던 아부다비와 두바이의 국영기업들의 채무 규모는 2013년 기준 아부다비 979.5억 달러 및 두바이 1,124.4억 달러로, GDP 대비 각각 37.8% 및 112.0%에 달하는 과중한 수준임.

- 또한 2015년 중 만기도래 채무액은 아부다비와 두바이가 각각 135.1억 달러와 91.1억 달러로, 거액의 해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아부다비와 달리 두바이는 현재도 채무상환 관련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 두바이 정부는 2013년 1월 10년 만기 7.5억 달러와 30년 만기 5억 달러로 구성된 총 12.5억 달러의 이슬람 채권(sukuk) 발행을 통해 채무 관리에 나서고 있음.
- IMF의 2014년 7월 보고서에 의하면, 두바이의 경우 국영기업을 포함한 정부 채무는 약 1,417억 달러로 2013년 두바이 GDP의 141.1%에 달하며, 이중 약 922억 달러가 2014~19년 중 만기도래 예정임. 주요 차주별 채무잔액은 두바이 정부 292억 달러, Dubai World社 296억 달러, Dubai Holdings社 160억 달러 등임.
- 두바이의 국영기업 Nakheel社가 21.5억 달러의 차입금을 금년 2월과 8월에 나누어 전액 조기상환하고, 두바이 정부가 금년 중 만기도래 예정이던 200억 달러(아부다비 채무부 앞 100억 달러, UAE 중앙은행 앞 100억 달러)의 만기를 5년 연장하는 채무재조정에 성공하는 등 채무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음.

## 나. 성장 잠재력

### □ 풍부한 원유·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원유의 확인매장량은 2013년 말 기준 978억 배럴(세계 점유율 5.8%)로 세계 7위이며, 현재 생산량 기준으로 향후 약 80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임.
- 천연가스도 매장량이 세계 7위(6.1조 입방미터, 세계 점유율 3.3%)이며, 구리, 마그네슘, 망간 등 광물자원의 개발 잠재력도 비교적 큰 것으로 확인됨.
- 7개 토후국 중 국토의 86%,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아부다비가 UAE 원유 생산량의 94% 이상, 천연가스 매장량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중계무역 기지, 금융 허브로서의 역할 수행

- 동서양을 연결하는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낮은 조세부담, 양호한 물류 및 금융 인프라, 정부의 적극적인 개방정책 추진 등에 힘입어 중동, 아프리카, CIS 등 세계 150여개 국가에 재수출(수입품의 40~70% 수준)을 하는 중계무역의 중심지임.
- 특히 석유, 은행, 상업용 부동산 임대 등의 3개 산업을 제외하고는 기업과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수입관세율도 GCC\* 공통관세율을 적용한 5%로 낮은 수준임.
- \*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6개국으로 구성된 경제협력체
- 또한 6개월 내에 재수출할 경우 수입관세를 100% 환급해 주고 있어, 세계 각지의 무역상들이 집결하는 중동 최대의 중계무역 기지로 발전하고 있음.

## □ 중동 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인한 반사이익

- “아랍의 봄” 이후 중동의 대표적 관광지인 이집트, 튀니지 등의 정정불안에 따라 두바이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에서 보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기업들과 투자자들이 몰리는 등 중동 지역의 정정불안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음.

## 다. 정책성과

### □ 산업다각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

- UAE 정부는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로부터의 탈피를 위해 제조업, 금융, 관광 등 비석유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음.
- 도로 개보수, 발전소 건설, 대형 송유관 증설, 주거시설 확대 등 기간산업에 대한 투자 외에도, 최근에는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중심으로 건설업, 금융, 관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아부다비는 2009년 1월에 철강·금융·관광·항공 등 비석유산업의 육성을 위한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전략을 발표, 현재 추진 중임. 아부다비 경제개발부는 아부다비의 GDP 중 비석유부문 수출의 비중을 2012년 기준 1%에서 2030년까지 11%로 확대할 계획임.

#### □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으로 투자 유입액 증가 추세

- UAE는 석유·가스 산업 및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개방하는 등 비석유 부문의 육성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임. 또한 수입대체 의무, 수출 의무, 국산화 의무, 과실송금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없어, 외국인투자자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음.
- 특히 약 30여 개의 자유무역지대 내에서는 외국인의 100% 지분소유가 인정되고, 세금이 없으며, 과실송금이 보장되고 있어 외국인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같은 투자유치 정책에 힘입어 연간 FDI 유입액은 2009년 40억 달러에서 2013년 105억 달러로 증가하였으며, 2014년에도 중동 지역의 안전한 투자처로서의 상대적 이점 등이 부각되어 114억 달러의 FDI를 유치할 것으로 전망됨.
- 알루미늄 제련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등 비석유 부문으로의 산업다각화, 부동산업과 관광업의 회복세 등도 FDI 유입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연간 FDI 유입액(억 달러) : 40(2009) → 55(2010) → 77(2011) → 96(2012) → 105(2013)

#### □ 철도 건설 등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 계획 추진

- UAE 정부가 출자하여 설립한 국영 철도기업 Etihad Rail은 2016년 완공을 목표로 두바이 시내와 아부다비 시내를 연결하는 여객용 철도(총연장 510km)를 건설 중이며, 아울러 3단계에 걸친 총연장 1,171km의 철도망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1단계 Shah-Habshan-Ruwais의 총연장 264km 구간(Habshan-Ruwais 구간은 현재 시험 운행 중), 2단계 공사는 1단계 부분을 걸프 연안의 항구들인 Khalifa와 Jebel Ali 및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국경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628km 구간(입찰 진행 중), 3단계 공사는 두바이와 북부의 3개 토후국(Fujairah, Ras Al Khaimah, Sharjah)을 연결하는 총연장 279km 구간임.

\* UAE 철도 프로젝트의 총투자액은 약 100억 달러이며, 철도 완공시 매년 승객은 1.6억 명, 물동량은 약 1.1억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아부다비 도시계획위원회(Urban Planning Council)가 승인하고 아부다비 Mubadala 개발회사가 발주한 Al-Maryah 섬 개발 프로젝트는 2007년 공사를 시작하여 금년 말 최종 단계가 완공될 예정임.

- 동 프로젝트는 Al-Maryah 섬 내의 350만 평방미터 면적의 부지에 상업시설, 주거단지, 복지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Al-Maryah 섬은 아부다비의 신규 비즈니스 구역이자 투자지역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 3. 대외거래

#### □ 석유수출에 기반한 상품수지 흑자가 경상수지 흑자의 근간

○ 석유 부문 수출과 중계무역 등의 호조에 따른 양호한 상품수지를 바탕으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지속되고 있음.

○ 2013년에는 국제유가 하락 추세 속에서도 원유생산량 증대와 비석유 부문의 수출 호조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3.9% 증가하였으나, 각종 개발사업 관련 기술 도입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은 전년(18.5%) 대비 하락한 16.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인한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 경제성장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입 증가 등으로 인해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이 전년 대비 더욱 하락한 13.1%에 그칠 전망이다.



## □ 석유수출 수입(收入)과 FDI 유입으로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액 유지

- 대규모 오일머니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으로 비교적 풍부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하여 외환보유액이 2009년 말 250.7억 달러까지 감소하였으나, 2010년 이후 석유 판매 수입 증가와 외국인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따른 FDI 유입 증가로 2013년 말에는 669.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UNCTAD의 2014년 World Investment Report에 의하면, UAE는 2013년 한 해 동안 GCC(걸프협력회의) 6개 회원국들 중 가장 많은 105억 달러의 FDI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났음.

## □ 국부펀드를 통한 막대한 해외자산 보유 및 운용 중

- Sovereign Wealth Fund Institute의 집계에 따르면, 1976년에 설립된 아부다비의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의 운용자산 규모는 2013년 말 기준 약 7,730억 달러로 노르웨이 정부 연기금(8,930억 달러)에 이어 세계 2위임.
- 이밖에 아부다비투자위원회(ADIC)가 900억 달러, 두바이투자회사(ICD)가 700억 달러, 아부다비 국제석유투자회사(IPIC)가 653억 달러, 아부다비 Mubadala 개발회사가 609억 달러, UAE 연방정부의 에미리트투자청(EIA)이 150억 달러, 그리고 라스 알 하이마흐 투자청(RAKIA)이 12억 달러 규모의 국부펀드를 각각 운용 중임.
  - UAE의 국부펀드 총액규모(2013년 말) : 약 1조 754억 달러

## □ 외채규모는 다소 과중한 수준

- 외채규모는 석유화학 부문 투자 증대, 각종 인프라 개발사업 확대의 영향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말 GDP의 36.3%인 1,462.9억 달러로 다소 과중한 수준임.

&lt; 표 2 &gt;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sup>e</sup>	2014 <sup>f</sup>
경 상 수 지	7,246	50,955	68,967	64,638	56,159
경 상 수 지 / G D P	2.5	14.7	18.5	16.1	13.1
상 품 수 지	48,978	106,595	131,982	137,101	135,385
수 출	213,539	302,037	349,481	378,609	407,081
수 입	164,561	195,442	217,499	241,507	271,696
외 환 보 유 액	31,751	36,091	45,826	66,951	71,742
총 외 채 잔 액	138,334	138,204	142,129	146,286	150,842
총 외 채 잔 액 / G D P	48.3	39.8	38.2	36.3	35.3
D S R	11.2	8.5	7.4	7.0	6.7

자료: IMF, EIU.

### Ⅲ. 정치·사회동향

#### 1. 정치안정

##### □ 왕정에 대한 국민의 지지로 정치적 안정 지속

- UAE의 정치체제는 7개 토후국이 연방정부를 구성(1971년 출범)하는 연방 대통령 중심제이며, 토후국별로는 왕정을 취하고 있음. 최대 토후국인 아부다비의 지도자인 Sheikh Khalifa bin Zayed Al Nahyan 대통령과 두바이의 지도자인 Sheikh Mohammed bin Rashid Al Maktoum 부통령 겸 국무총리의 통치하에 정치안정이 지속되고 있음.
- 왕족 일가의 장기 집권체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정부 주도하의 적극적인 경제발전 정책으로 높은 국민소득을 유지하고 있는 동시에 왕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와 충성심이 높아 정치 불안 요인은 거의 없음.

##### □ 국내외의 민주주의 요구가 있으나 그 세는 미약

-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2013년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에 따르면, UAE는 167개국 중 152위로 Authoritarian Regimes (독재 정권) 그룹에 속하여 민주주의 단계가 낮음.

- 정치적 다원성의 확대를 촉구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으나, 반정부, 반이슬람 표현 의견 게재 혐의로 고발되는 자는 최소 3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추방되는 등 UAE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그 세는 미약한 편임.
- 정부는 현재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주의 정치세력의 발호를 적극 억제하고 있음.

##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은 매우 희박

- 2011년 1월 튀니지에서 시작된 중동 민주화 혁명이 이집트와 리비아를 거쳐 바레인, 오만 등 GCC 국가로까지 확산되었으나, UAE는 중동 지역에서 반정부 시위 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은 국가로 평가되고 있음.
- 타 중동 국가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고, 이슬람의 종교적 보수 색채가 덜한 수니파가 집권하고 있으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약 85%)이 높아서 인근 국가들의 민주화 시위에 대한 관심이 낮음.
- 또한 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충성도가 높고, 정보기관·군인·경찰 수뇌부가 왕실 일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야당이 존재하지 않아 반정부 세력화가 어려움.

### □ 토후국간 소득격차 확대가 잠재적 불안요소로 부상 가능

-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제외한 5개 북부 토후국들이 경제성장의 혜택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됨에 따라 토후국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들의 불만 증대가 잠재적 불안요소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됨.
- 그러나 UAE 연방정부는 북부 토후국들을 대상으로 수자원 및 전력시설 확충, 교통망 건설사업 등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식료품 보조금제를 도입하는 등 민심을 달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단기간 내에 심각한 소요사태로 발전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 3. 국제관계

#### □ 안보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한 서방 국가들과의 협력관계 유지

- UAE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소국으로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안보 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걸프전 이후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미군 및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함으로써 이라크 등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음.
- 아울러 서방 국가의 자본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경제적으로도 서방 국가들과 친선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에 중국과도 원유수출과 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 □ GCC의 내부 결속 강화·발전은 회원국간 이견, 카타르의 독자행동 등으로 지지부진

- GCC는 이란 및 역내 알카에다 세력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회원국간 협력 강화를 도모할 목적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성격의 협력체인 걸프연합(Gulf Union)의 결성에 대한 구상을 추진해 왔음.
- 그러나 내해(內海) 영유권을 둘러싼 아부다비-사우디아라비아 간 분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2009년 5월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가 걸프 중앙은행의 소재지로 결정된 데 불만을 품고 UAE가 GCC 통화동맹에서 탈퇴하는 등 갈등도 상존함.
- UAE는 지난 3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과 함께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카타르가 2013년 11월 GCC 회원국들이 서명, 비준한 안보협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카타르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는 조치를 취하였음.
- 동 안보협정에 따르면 GCC 회원국들은 직·간접적으로 다른 회원국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으며, 또한 직·간접적으로 각국의 치안과 안정을 위협하는 단체나 개인을 지원할 수 없음. 이는 사실상 무슬림형제단과 알-자지라 방송을 지원하는 카타르를 겨냥한 것임.

- UAE,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등은 이슬람주의를 표방하는 무슬림형제단을 자국의 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존재로 간주하여 탄압하는 반면, 카타르는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등지에서 무슬림형제단의 반정부 시위를 적극 지원하며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키워 왔음.

#### □ 이란과의 관계는 협력과 갈등의 양면적 상황 유지

- 이란은 최근 수년간 UN과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으로 두바이를 주요 무역기지로 활용하며 UAE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 부상하였음. 그러나 Abu Musa 등 3개 섬에 대한 영유권 분쟁으로 양국 간의 갈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IV. 국제신인도

### 1. 외채상환태도

#### □ 두바이-아부다비 간의 채무만기 연장 합의

- 아부다비 재무부와 UAE 중앙은행은 지난 3월 16일 두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두바이 정부에 대한 채권(약 200억 달러)의 만기 연장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음.
  - 아부다비 재무부는 두바이 정부 앞 대출(약 100억 달러), 중앙은행은 두바이 정부 발행 채권(약 100억 달러)에 대하여 상환기간 5년, 이자율 연 1%의 동일한 조건으로 만기 연장하는 데 합의하였음.
- 아부다비와 중앙은행의 만기연장 합의는 2020 두바이 엑스포 등에 따른 두바이 경제에 대한 밝은 전망을 반영한다는 평가로, 두바이는 이번 만기연장에 힘입어 2020 엑스포 등에 대비한 인프라 투자가 당초 계획대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두바이는 물론 UAE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2013년 우리나라와의 교역규모는 238.6억 달러로 전년(2012년 219.8억 달러) 대비 8.6% 증가하였음.
- 수출은 자동차, 무선통신기기, 자동차부품 등을 중심으로 57.4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6.4% 감소한 반면, 수입은 원유, 석유제품, LPG 등을 중심으로 181.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19.9% 증가하였음.

#### □ 우리나라의 주요 해외건설 수주국

- 2014년 8월 말 누계액 기준 우리나라의 UAE 수주액은 663.7억 달러로 전 세계 수주총액 6,547.8억 달러의 10.1%를 차지하였음. 특히 2010년 한전 컨소시엄의 원전 수주(186억 달러)에 힘입어 수주액이 256억 달러를 기록, UAE 진출 이후 최대의 수주실적을 기록한 바 있음.

#### □ 해외직접투자 (2014년 6월 말 누계, 총투자 기준) : 356건, 10.1억 달러

< 표 4 >

한·UAE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2012	2013	2014.1~7	주요 품목
수 출	6,862	5,738	4,243	자동차 및 그 부품, 무선통신기기
수 입	15,115	18,123	9,458	원유, 석유제품, LPG

자료: 한국무역협회.

## V. 종합의견

- 아랍에미리트(UAE)는 세계 7위의 원유 및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자원부국으로, 2013년에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국제유가 하락 추세 속에서도 교역, 물류, 관광 등 비석유 부문의 성장에 힘입어 5.2%의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경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왕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고 두드러진 반정부 정치 세력이 존재하지 않으며, 거주민의 85% 이상이 외국인으로 정치 민주화를 요구하는 반정부 시위 등 소요사태의 발생가능성이 미미함에 따라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있음.

- 외환보유액 대비 높은 외채비중, 특히 두바이의 국영기업들의 과중한 채무로 인한 부실화 위험 등이 경제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나, 경상수지 흑자 규모 및 총액 1조 달러를 상회하는 국부펀드 등 막대한 해외자산 규모와 비교적 낮은 D.S.R 수준(2013년 말 7.0%) 등을 감안할 때 외채상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선임조사역 오경일 (☎02-3779-5720)  
E-mail: oki1122@koreaexim.go.kr